

# “생명·안전,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 전북자치도, 도내 5인 이상 기업체에 재해 예방 도지사 서한문 전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전북자치도는 도내 2만5,762개 사업장에 중대 재해 예방에 민전을 기해 달라는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경영주와 노동자에게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재해 없는 일터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매년 종합대책으로 ‘중대 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중대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강화 업무협약 체결하며 밀도 있는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중대 재해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전문가가 위촉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생활 안전교육과 연계, 시설 방문 시 중대 재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상공회의소, 건설인 협회 등 유관기관 정례회 개최 시 산업안전 강의를 필수로 넣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대 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대 재해 처벌법 관련한문의 사항을 상담하고 실·국별 업종별 전담부서 홍보물 제작·배부 등을 통해 중대 재해 처벌법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법률에는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으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그 책임을 지게 된다. /0만호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7일 전북광역푸드뱅크에서 지역농가의 상생을 위한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 전달식

###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농가 상생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7일 전북광역푸드뱅크에서 지역농가와 상생을 위한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전국푸드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맛과 영양은 우수하지만 모양과 크기 등 단산 물품을 구매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MG어글리푸드(못나이가 농산물) 폐기를 예방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가의 상생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 전남지역에 이어

올해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경남, 경북, 충남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2,8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 농가 및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및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MG어글리푸드패키지를 포장했고, 전북 내 인구감소지역인 무주, 부안, 임실, 정읍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700가구에 MG어글리푸드패키지를 지원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농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소비자들에게도 어글리푸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는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월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응원하는 물품 지원행사를 가졌다.

## 한전 군산지사, 한부모가정 ‘사랑의 꾸러미’ 나눔행사 개최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월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응원하는 물품 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한 ‘사랑의 꾸러미’는 한국전력 군산지사 임직원의 월급에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어린이 영양제, 세탁제, 조미김, 통조림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군산시 관내 한부모가정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민모 군산지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작은 나눔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만큼, 성장기 자녀 양육을 위해 애쓰는 가정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 소외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 농어촌공, 기후변화 대응 수질 환경관리 강화

### 녹조 예찰 지구 확대·녹조 저감 신기술 지원 등 대응체계 마련

한국농어촌공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집중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녹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맑고 안전한 용수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매년 녹조 집중관리 기간(4~12월)을 설정하고, 녹조의 사전 감시·예방·제거 등이 연계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수질관리에 집중해 왔다. 또, 수질환경보전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거버넌스 운영을 확

성화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수질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계 보전의 지속성을 높여오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수질오염 전문가로 구성된 ECO-4U센터 운영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녹조 예찰 지구를 확대(2023년 275개소 → 2024년 387개소)하는 등 강화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김옥기 기자

아울러 ‘수질개선 실증실험’으로 중소기업의 녹조 저감 신기술을 지원하고, 물순환·인불용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KRC수질보전대책을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힘을 계획한다. 이승현 환경관리처장은 “모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관리하는 중”이라며 “수질관리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 전북 회장단, 도민안전실 중대재해 예방 현장 소통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와 전북도 도민안전실(실장 윤동욱)은 30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사고 예방을 하고자 마련됐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 하였지만, 아직은 회사 경영진의 이해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중·소건설 현장 안전보건 지원 방안 마련 및 중·소건설사 규모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소재철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역건설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회원사의 부담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공사관리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 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이 시기부터 등로 해마다 최대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자유·지천의 수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수립 시 하천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문화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은 30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전북도 구현을 위해 건설협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새만금사업단, 농생명용지 영농면적 확대·시범재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김동인)은 농가소득 증대 및 간척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영농면적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은 4,850ha로서 전년도 3,197ha 대비 약 1.5배가 확대된 규모이다. 전체 대상면적을 124개 구역(1개 구역당 평균 40ha)으로 나누어 지난 5월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124개(2,653개 농가로 구성) 임대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해당 영농법인은 6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있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밀과 보리에 대한 시

범재배도 추진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토양조건 및 생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재배를 추진할 농작물과 구역을 선정했고, 그 면적은 전체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0% 이내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서 사료작물 재배보다 1년이 더 길다. 아울러 시범재배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농작물 다양화 및 재배면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간척농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곽노태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